

바라밀현장

“아이들 자라는만큼 보람도 자라요”

‘이공회’의 장애아 엄마되기

“아빠, 아빠!”
18일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 5가. ‘항상 즐거움이 가득한 집’이라는 뜻을 가진 장애아 시설 상락원(常樂院). 1층 보련방에 아빠처럼 생긴 기자들이 들어서자 아이들이 ‘아빠’를 외치며 달려든다. 뇌성마비 2급 장애아인 민아(5)는 남자 아이들보다 더 막무가내로 매달린다. 매일 엄마들만 보다보니 아빠가 그리웠나 보다.
복지법인 승가원(이사장 종범스님)이 운영하는 상락원은 이런저런 이유로 부모로부터 버림받거나(약 90%) 부모가 생활보호대상자인 가정으로부터 데려온 장애 아동들이 생활하는 시설이다. 이날 찾아간 상락원은 어두운 분위기가 아니라 예상과는 달리, 60대의 엄마들과 놀고 있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퍼지고 있었다.
보련방의 아이 10명은 어릴적부터 뇌성마비에 걸린 소음(5)이, 다중증후군에 걸린 지린(4)이, 선천성 심장병에 걸린 세린(3)이를 비롯해 정신지체, 자폐증, 지체장애 등 다양한 장애유형을 갖고 있었다. 어릴적부터 부모로부터 떨어져 자라온지 따뜻한 사랑을 그리워하는 몸짓이 여느 아이들보다 절절했다.
“아이들을 너무 많이 안아주면 안되는데 쉽지만은 않아요. 너무 많이 안아주면 나중에 더 심한 외로움을 느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어디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품어 와서 안기는걸.”
매주 화요일 상락원에서 주방 일이나, 청

엄마의 사랑 심으며 허드렛일 회원 6명 출발, 매주 2~4곳 봉사



◇18일 서울 상락원에서 장애아들과 놀아주고 있는 이공회 회원들. 사진=박재완 기자

소, 아이들 돌보기를 하고 있는 ‘이공회’(회장 이화순) 회원인 황옥순(64·서울 용산) 보살은 3년전 처음 왔을 때는 표정이 어두웠던 아이들이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 즐겁다고 말한다.
“뇌성마비(1급)로 걸지도 못하던 태준이가

5살이 되어 걷게 되었을 때는 친부모처럼 기뻐했어요. 아이들은 매주 화요일 방문하는 우리 엄마들을 보면 한시도 안떨어지려 하죠.”
원영화(용인 수지) 보살은 ‘봉사하며 어려움 없었냐’는 질문에, “매번 아이들을 돌보러 왔다가 오히려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되어 돌아가는 걸요.”라며 정색을 한다.
상락원에는 83명의 지체-시각-정신 장애 아동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대부분 24시간 보호자의 손길을 필요로 한다. 안기와 놀이기 등 기본적인 활동에서부터 식사, 대소변, 목욕 등 아이들의 손발이 되어주는 것은 바로 자원봉사자들의 몫이다. 이곳 상락원에도 사찰·단체에서 온 20여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능숙한 솜씨의 보육교사 33명이 8개의 방마다 두명씩 배치돼 있지만, 10명을 넘는 아이들을 돌보는 허드렛일을 도와줄 자원봉사자가 필수적이다.
2000년 4월 1일부터 상락원 자원봉사를 시작한 ‘이공회’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자원봉사 교육’ 20기 졸업생 6명이 만든 미니봉사모임, 6명의 회원들은 모두 원찰을 갖고 불교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매주 2~4곳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보현행자들이다. 아내이자 엄마로서 바쁜 주부임에도 24시간 근무체제의 상락원 교사와 함께 엄마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이공회 회원들은 관세음보살의 천수천안(千手千眼)과 닮았었다.
상락원 사무국장 지용 스님은 “두 팔과 온전한 몸과 마음을 가진 우리가 다른 한 팔과 한쪽 눈을 잃어 버린 줄모르듯 그들이 더 많은 것을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사랑의 눈길, 자비의 손길로 감싸달라”고 당부했다.
후원=(02)921-6410, 6411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세계 불교 여성지도자들

성향 선사 (F)

벽안제자 수행 돕는 자상한 어머니

화두 참가가 보살행의 실천과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성향 선사는 이 난제를 이렇게 헤쳐나갔다. 그녀는 세계적인 불교잡지 <Tricycle>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만약 당신이 모든 사람들을 돕겠다는 보살의 서원을 세웠다면, 새로운 의문이 떠오를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하지?’라고. 우주는 매우 관대하죠.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면, 그 대답은 저절로 나타날 것이고 사명감은 저절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이 고된 직업과 사명을 명석하게 자비심을 갖고 처리하세요. 어디로 한 발 내딛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한, 당신은 결코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살행을 펼치면 언제나 ‘이 뭐고?’를 질문하며, 수행해야만 합니다.”
성향 선사는 임종간호의 현장에서 신을 이해하고 본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이끌어주었다.
1972년 승산 선사의 제자가 된 후 30여년간 공부하면서, 어느덧 성향 선사는 승산 스님을 닮아 있었다. 관음선원 원장 승산 스님을 보좌한 부원장으로서, 세계 32개국 120여 개 흥법원 산하 5만여 벽안 제자들의 수행 정진을 어머니처럼 자상하게 지도해 온 것이다. 성향 선사는 처음 승산 선사를 전견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승산 선사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히피였습니다. 큰 모양의 긴머리에 터럭터럭 누빈 청바지를 입고 쌀과 콩만 먹는 배타적인 다이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향 선사는 선원에서 몇 주일을 살았는데, 스승의 가르침이 얼마나 깊고 노련하며 유머러스한 지를 알게



◇리처드 비에르스 스님과 함께 한 성향선사(왼쪽).

스승 가르침, 형식 구애없이 전파

“완전치 못하기에 완속하려 노력”

많은 사람들의 종말을 지켜본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감기 직전 스스로에게 “오,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시간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거야?”라는 질문도 못한 채 일생을 떠나가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성향 선사는 마음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바른 처방을 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성향 선사는 불법에 들어나는 세속처럼 생기가 있는 불법(佛法)에 대한 지혜를 승산 스님으로부터 받아들였고, 이를 다른 이에게 전하려는 열정을 보여 주었다. 스승의 가르침 그대로 어떤 형식이 구애없이 제자들에게 따뜻한 가르침을 전한 성향 선사는, 그들이 자기자



‘이공회’ 만든 원영화 보살

날마다 보시행 ‘즐거워요’

2000년 4월 ‘이공회’를 만든 원영화(62) 보살은 봉사에 헌신할뿐 아니라, 78년 강남 봉은사 불교대학을 졸업한 후 한국불교연구원과 전통

불교연구원에서 20여년간 경전을 공부할 정도로 교리에도 해박하다. “보시는 온갖 선행의 으뜸이 되어 끝내는 깨달음에 이르게 되니 억만금을 보시하고도 딱 생각 갖지 않으면 기쁨은 나날이 더욱 늘어나리라.”는 경전 가르침을 기억하며 보시행에 나서게 됐다고 말한다.
자제정사의 노인 목욕봉사와 총지종 노인부

지센터의 무료급식, 마포복지관 수지침 봉사, 상락원 봉사 등 네 군데의 자원봉사를 정기적으로 다니다보면 1주일이 후딱 지나간다. “날마다 하는 보시행이 즐겁다”는 원 보살은 자녀를 다 키운 후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40~50대 주부들에게 당부한다. “매일 불교 공부하고 보시행을 해보세요. 나날이 즐거워져 늙을 시간이 없어요.”

어느 불교대학 수강생인 여성분자 한 분이 드립 말씀이 있다며 차한잔 하자고 했다. 이 불자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하여 생활이 어렵다 보니 어디에 기대고 싶은 마음으로 절을 찾게 되었다고 했다. 언젠가 어느 스님께 어떻게 수행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지장경을 하루에 5독씩 1년간 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처음에는 낮에 직장에 다니는 터라 시간에 쫓겨도 심신을 가지고 열심히 수행했는데, 이제는 경전이 있는 것 자체가 짐이 되어 자꾸만 싫증이 나는 마음이 생기니 어쩌면 좋으냐고 물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문제를 갖고

하소연 하는 불자들이 많이 만나게 된다. 문제는 마음의 짐을 털어주고 풀어주어야 할 수행이 도리어 짐이 되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데 있다.
부처님 당시에 ‘애끄다나’라는 수행자가 있었다. 애끄다나란 ‘하

않아 하나의 계승에 마음을 집중하다가 기쁨이 생겨 입으로 크게 울조리게 되었다. 숲 속에서 갑자기 박수소리와 함께 와! 하고 정전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숲 속에서는 나무 신들이 애끄다나의 계승

있겠는가’ 생각하고 두 강사 비구에게 그 일을 말했다. 그곳에 가서 경을 외워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결과는 의외였다. 두 강사 비구가 숲 속에서 열심히 온갖 경전을 암송했지만, 숲 속은 고요하기

나 무조건 외운다고 하여 공덕이 있고 지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하나의 계승이라도 잘 이해하고 수행으로 돌릴 때, 그 가르침이 빛날 것이라고 타이르셨다.
경전은 우리 마음을 깨우쳐주시기 위해 부처님께서 설하신 말씀이다. 한 구절 속에 부처님의 모든 말씀이 들어있다는 믿음과 그에 대한 철저한 이해, 그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고 번뇌를 깨뜨리는 데 그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열심히 독송만 하면 무엇이든 성취할 수 있다는 미신적 믿음과 행위를 그치지 않으면 결코 중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적연(유마선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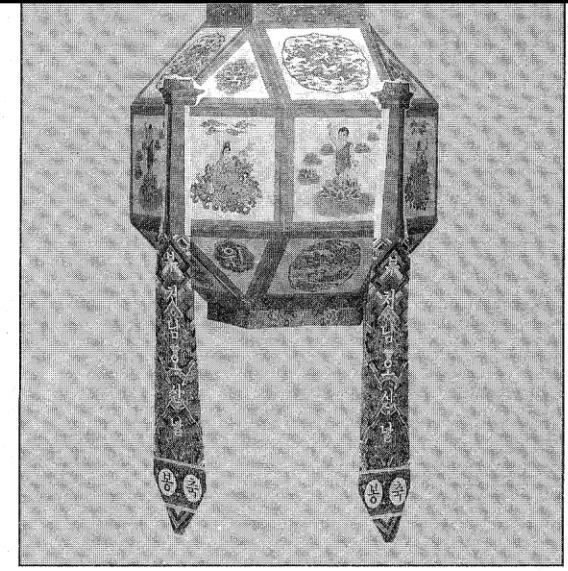
마음비추기

경전 이해하고 수행으로 돌려야

나의 계승’이라는 뜻이다. 애끄다 나에게 이와 같은 이름이 붙어지게 된 것은, 그가 부처님의 여러 가지 가르침 가운데 하나의 계승만을 갖고 수행했기 때문이었다. 어느 날 애끄다나가 어느 때처럼 숲 속에

소리에 감동을 받아 내는 소리였다. 애끄다나는 ‘자기처럼 하나밖에 모르는 계승 소리에도 이렇게 숲 속의 신들이 칭찬을 하니, 경전을 많이 외우고 있는 강사비구들의 계승을 들으면 얼마나 많은 환호가

만 했다. 두 강사는 의아해 애끄다 나에게 대가 한번 해보라고 했고, 숲은 앞서처럼 크게 환호했다. 속이 상한 두 강사는 숲을 떠났고, 그 사실을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그러자 부처님은, 경전을 많이 알고 있다가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 동결 단행!!

어려운 사찰의 경제에 도움을 드리고 국산품을 애용하자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풀칠 구조에 날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야외장염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가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미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관회의 고증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청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불초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통 구조로 인한 높은 가격을 배격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펼친 상태 (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4P 현우기획
전화: (02)467-1513 핸드폰: (016)552-9360

개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 유리스에는 불사에 관련된 일체 모든것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

귀의삼보 하얏고
제방의 대덕 스님과 선연 신도님께 삼가 합장삼배를 올립니다.
시방제국토의 장엄과 무진정법의 외호에 일신의 원력을 세우고 불사일념 해 온 소생이 금번 흥대전철역 인근에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을 개원했습니다. 각종 불사의 상담에서 회향까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진하고자 하오니 두루 격려해 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길 앙망 합니다.

2003년 2월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대표 이 효 실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불사, 불상, 명화, 서적, 유구, 조상복
TEL: 336-2165 FAX: 336-2166

불사 법당 조성 **행화 유품**
서적 테이프 **조상복 무용도구**

유리스 불교용품 전시관 전화: 02-336-2165 팩스: 02-336-2166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75-1 삼정빌딩 1층